

통신팀 선거 평가

던지는 녀: 뚝

받는 이들: 선거평가를 위해 모인 이들

■ 통신팀의 역할

통신팀은 선거기간 동안에 통신 공간에서 선본을 알려나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통신팀의 역할은 공식적으로 선본 ID로 선본 이름을 걸고 공약이나 정책, 유세문을 올리는 것이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익명 게시판이나 다른 ID를 빌려서 선거에 관련된 글들을 쓰는 일-일명 물밑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 통신팀의 구체적인 활동

- 익계에서 기독교 팀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정체를 알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죠. 여기에는 얼굴 없는 많은 이들이 동참해주었습니다.
- 부모성함께쓰기가 논란이 되었을 때는 함께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기도 하였고, 몇몇 음해성 글들에 대해서는 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성함께쓰기와 관련해서 나우누리 별파란(99)님으로부터 '로그인12'로 메일이 왔는데, 부모성함께쓰기에 대한 설명을 게임방 가서 한 시간동안 써서 메일을 보냈습니다.(답변 내용은 '로그인12'로 접속한 다음에 편지 읽기를 하면 됩니다)
- 합동유세 유세문을 총학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 2차 리플렛 글을 올렸습니다.

■ 통신팀 활동에 대한 평가

통신팀이 무엇을 해야하는 곳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는 정해져 있지만, 그 일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이번 선거기간에는 특별히 통신팀만 할 수 있는 '무엇'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심심하면 통신에 들어가서 이미 나온 글들을 올리는 수준에 그쳤다고 봅니다. 선거 자체가 논쟁이나 정책이 중심이 되지 않아서 통신공간이 갖는 장점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 해줄 말...

통신 공간이 활성화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이 공간에서는 상호소통이 가능하다.
선거는 논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단 한번의 기자 간담회는 스스로의 정치적 입장을 보여주기에 너무나 제한된 공간이다.

선본 홈페이지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지...

올해 서울대 선거에서 '광란의 10월'이라는 선본이 선거 홈페이지를 만들었다.(<http://www.hurmin.com>) 비록 별 내용 없고 이상한 뽀소리가 많긴 했지만, 지금까지 무려 5천이 넘는 접속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관심은 다른 선본 - 자주나 대장정, 학연 등 - 이 만들었다면 얻기 힘들었겠지만... 아무튼 가능성은 있는 공간이라고 본다.

내년 총여 선거에 만약 다시 나간다면 총여 선본들과 합의 아래 각 선본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 속에서 논쟁을 이뤄 나가는 것도 좋을 듯 싶다.